

“감옥생활 끝”...꽃무늬 옷 입고 모처럼 읍내 나들이 ‘활기’

메르스 격리 해제된 보성읍 주읍마을 표정

논·밭 살피러 아침부터 분주...가족 방문도 잇따라 동네잔치 벌이고 등교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웃음꽃

보성군 보성읍 주읍마을은 22일 새벽 동이 뜨기전부터 활기가 느껴졌다. 지난 10일 한 주민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되면서 통째로 격리됐던 마을은 이날 0시를 기해 해제됐다.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빠져나간데다, 메르스 여파로 격리되면서 적막감이 휩쓸었던 마을 도로를 오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동이 뜨기 무섭게 마당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2주 가까이 살피보지 못했던 논·밭으로 발걸음 재촉하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김모(53)씨는 “활일이 많은데 갑자기 격리되는 바람에 다른 마을에서 돈을 주고 이양기를 빌려줬는데도 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감옥 같은 격리 생활을 끝냈다는 기쁨, 동료 주민이 건강하게 완치됐다는 반가움이 맞물리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잖아”라며 “건강히 완쾌했다니까 그게 더 반갑지”라고 말했다.

마당에 심어 놓은 고추와 오이 등 잠시 텃밭을 돌러보는 것을 제외하고 외출을 삼갔던 동네 노인들도 화려한 ‘꽃무늬’ 옷을 꺼내놓고 한쪽 손에는 노란색 양산까지 챙겨 들고 동네를 나섰다.

위모(여·73)씨는 “감옥같은 격리 생활이 끝났으니 오늘은 읍내에 가 바람도 쐬고 장도 볼 것”이라며 “이곳저곳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주 부족하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오전에는 동네에서 격리 해제를 자축하는 작은 잔치도 벌어졌다. 평소 왕래를 하

며 지냈던 인근 마을 주민들과 도심에 사는 가족들의 동네 방문도 끊이지 않았다.

주읍마을 주민 이모(73)씨와 50년 지기 친구라는 정모(71)씨는 격리 해제된 이른 아침, 친구 얼굴이나 보겠다며 동네를 찾았고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도 마을이 격리되면서 모자를 찾아뵙지 못했던 아들도 새벽부터 동네를 찾았다.

주읍마을 최모(여·75) 이장은 “나이먹은 어른들보다 학교에 못가는 어린 학생들이 더 갑갑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며 “오랜만에 교복을 챙겨입은 형, 누나를 따라 학교를 간다며 나서는 아이를 보니 (격리 해제가) 실감이 난다”고 했다.

이날 마을 격리가 해제되면서 보성여중·보성고를 다니던 마을 학생들도 모처럼 학교를 찾아 친구들과 어울렸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움츠러들었던 보성읍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숨긴 채 불안함에 움직임을 삼갔던 주민들의 모습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얼굴에 웃음을 드러내며 지나다니는 이웃 주민과 눈인사를 하는가 하면, 큰 소리로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상인들은 녹차밭 등을 찾았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읍내에서 만난 한 상인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가게 문을 잠시 닫아야 할 지 고민했다”면서 “가게 매출은 반토막 나지만 모든 주민들이 무사히 이겨냈으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건강하게 다시 만나 반가워요”

격리 조치가 해제된 22일 보성군 보성읍 주읍마을 주민들이 웃으며 이웃 주민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10일 한 주민의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다가 12일 만인 이날 0시를 기해 해제됐다.

／보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여파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줄었다

광주·전남 외출·모임 자체 음주교통사고 25~23% ↓ 음주운전 적발도 대폭 감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시기, 음주운전자와 음주 교통사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중 밀집 장소를 꺼려하면서 직장 내 회식·모임 등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8건으로 지난 2013년 같은 기간(80건)에 견줘 40% 줄어 들었다. 사고로만 보면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외출과 모임 등을 삼가했던 지난해(64건)보다도 25%나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자가 격리자 수도 한 때 6508명에 달했던 시기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해 10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면 올해는 83건에 그쳤다. 지난 2013년(108건)과 비교하면 23.2%가 감소한 수치라고 전남청은 설명했다. 음주 사고 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들도 줄어 들었다.

광주 경찰이 올 들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523명으로 지난 2013년(951명)에 비해 무려 45%가 감소했다. 지난해(678명)와 비교해도 22.9%가 줄어 들었다.

전남에서도 지난 2013년 1001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870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의 경우 685명으로 줄었다.

경찰이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줄어 들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경찰 입장은 다르다. 전남경찰청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메르스 여파로 차량 통행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했다.

광주청 관계자도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일부 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술자리를 자제하면서 음주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익산 택시기사 피살사건’ 10년 복역 30대 재심 결정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 후 대법원이 기각하면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어비도 없는냐”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해수욕장 등 10곳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목포 외달도, 영광 가마미, 신안 대광·우전, 무안 홀통·툼머리, 진도 가계·금갑·관매도 해수욕장과 진도대교 등 10곳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구간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진도대교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안전서는 또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4개월간을 성수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및 레저활동 지역 안전관리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4건으로 전년(16건)보다 66% 늘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과일 훔쳐 식당에 주고 소주 얻어 마신 50대 경찰서행



○노점상인 이웃의 화물차에서 과일을 훔쳐다가 식당에 ‘선물’해주고 소주를 얻어 마신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임모(54)씨는 지난 17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A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김모(52)씨의 화물차에서 잠외 4상자와 토

마토 3상자를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25만 원 상당의 과일을 훔쳤다는 것.

○아파트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붙잡힌 임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혼자 먹으려고 몇 개 가져갔다가 남은 과일을 식당에 가져다줬는데, 주인이 ‘고맙다’며 소주를 주자 계속 과일을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강력 추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1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 하실 분도 모심!

■ 주인직매 H. 010-3605-5000

